자기추측 MBTI 성격유형과 원예선호도간 관련성 분석

정선희¹ · 이상미^{1*} · 허무룡^{2,3}

¹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²경상대학교 원예학과, ³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An Analysis of the Cross-Relation Between Self-Speculated MBTI Personality Types and Horticultural Preferences

Seon Hee Jeong¹, Sang Mi Lee^{1*}, and Moo Ryong Huh^{2,3}

¹Urban Agricultural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55365, South Korea

²Department of Horticul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South Korea

³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South Korea

Abstract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in terms of MBTI personality types and horticultural preferences, where the MBTI personality types were obtained from the predicted results from the typical expression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s self-speculation MBTI preference indicator. The analysis results were organized into two types: intuition type and sensing typ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uition type preferred the herbs with fragrances, while the sensing type showed their preference towards flowering plant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ntuitive and sensing types with respect to 'five senses that are the most stimulating in the horticultural process', 'pla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ing horticultural activities', which imply that different types have different choices. In the comparison between thinking type and feeling type, the thinking type showed their interest in the overall shape of the plant, while the feeling type showed their first interest in the flowers of the plants. The result showed that thinking type and feeling typ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degree of preferences in horticultural activities', 'initially interested plant tissues', 'five senses that are the most stimulating in the horticultural process' and 'effects of horticultural activities'. Regarding the judging type and perceiving type in their choices of plant characteristics, the judging type preferred flower plants, while perceiving type preferred herbs with fragrances. The results of self-speculation MBTI personality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regarding the most interested plant tissue and plant characteristics, which leads to a difference in their choices.

Key words : horticultural activity, horticultural therapy, plant preference

I. 서론

원예활동을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후 유의적 효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행 전과 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예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수적, 질적 증가에 비해 원예치료의 이론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Choi et al., 2009). 또한 원예치료 관심 범주도 변해가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에 대한 규정이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이 다(Im, 2010). 따라서 최근 들어 보다 구체화된 기본 자료와 응용 방법을 연구 개발 하려는 추세로 단순한 원예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Choi et al., 2009; Han et al., 2009; Lee, 2002).

심리유형이론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선천적 선호 경향과 성격유형이 무관하지 않다(Lee and Ko, 2011)는 점과 어린이가 태어날 때부터 특정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Kim et al., 1995)고 하였다.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대표적인 시각적 상징이나 사물이 다르다(Chung, 1999), 개성의 시대에 자신의 표출에 적극적인 20대들은 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Received on October 4, 2016. Revised on October 26, 2016.

Accepted on January 18, 2017.

*Corresponding author: sangmilee@korea.kr

본 논문은 2012년도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예치료 적용방안 제시를 위한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원예선호도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어짐.

성격유형은 가장 보편적인 성격분류로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 컬러 및 톤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으며(Han, 2011), 대화나 업무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는 회화적 표현 속에서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Chung, 1998).

원예치료가 성립하려면 식물과 원예활동, 원예치료사, 대상자의 세 요소와 이러한 세 가지 역동성이 함께해야 하는데, 원예치료사와 식물과 원예활동으로 대상자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심리적 요인을 적용시켜 차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Son et al.,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 중 식물과 원예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추측에 따른 MBTI 성격유형, 원예선호도를 조사·분석하고 성격유형과 원예선호도와와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격에 기초한 식물 및 원예활동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원예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의 K대학교와 J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무작위로 선발하여 조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잘못된 답변을 제외한 778명 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53.6%(412명), 여자가 46.4%(356명)였고, 나이는 19세에서 29세로 20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33.5%(260명)로 가

장 많았으며, 21세 16.5%(128명), 22세 12.6%(98명)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방법을 충분히 숙지 교육된 연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개별 설명을 한 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원예선호도(원예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 특성이 다른 식물 사진 선택), 자기추측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대표적인 표현 선택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원예선호도 조사

원예선호도는 원예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와 잎의 모양, 꽃의 모양, 특성이 다른 식물 선택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예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

원예 관심도로 원예치료 인지여부, 원예활동 경험 유무와 원예활동 선호정도, 선호하는 원예활동 장소, 생활 장소의 식물 수를 조사하고, 원예 분류에 따른 선호도는 선호하는 식물, 식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조직, 좋아하는 채소, 과일, 꽃에 대해 설문하였다. 색과 향에 대한 선호로 선호하는 색채, 식물이 나타내는 색 중 선호 색, 식물의 오감자극, 선호하는 향을 조사하고, 원예활동 선호조사를 위해 원예활동의 흥미, 원예활동 체험, 고효율성 원예치료프로그램, 원예활동의 효과,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구성하고, 형태적 특성은 잎의 크기와 무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 특성이 다른 식물 사진 선택

특성이 다른 식물은 원예식물의 분류 중 화훼에서 일·이년생 초화류, 다년생 초화류, 구근식물, 관엽식물, 다육식물과 선인장, 화목류, 분화식물, 난과식물, 허브식물로 분류 되어진 것(Suh et al., 2008)에서 꽃을 관상하는 식물, 잎을 관상하는 식물, 가시가 있는 식물, 향기가 있는 식물로 나누어 사계절 푸른 관엽식물(쉐프렐라 홍콩), 향기가 있는 허브(로즈마리), 꽃이 있는 화분(노란색 국화), 가시가 있는 선인장(대봉룡)을 선정하였다.

2) 자기추측 MBTI 성격유형

자기추측 MBTI는 한국심리검사연구소(주)어세스타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대표적인 표현들을 조사 대상에게 제시하고, 조사대상이 자신의 성격과 가장 가깝다고 추측되는 쪽을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Table 1. Gender and age of subjects.

Item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412	53.6
	Female	356	46.4
	Total	768	100.0
Age	19	14	1.8
	20-22	486	63.3
	23-25	223	29.0
	26-28	42	5.5
	29	2	0.3
	Etc.	1	0.1
	Total	768	100.0

3. 분석방법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중 잘못된 답변을 제외한 778명 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로 얻어진 결과는 SPSS 18.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원예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와 특성이 다른 식물 사진 선택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원예선호도와 자기추측 MBTI에 대한 상관관계는 chi-square test(X^2) $p <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MBTI 성격유형 지표

MBTI 성격유형 지표에 따른 원예활동 선호도도는 Table 2와 같다.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대표적 표현들에서 자기에게 가까운 쪽을 선택하여 얻은 선호지표에 따른 원예활동을 좋아하는 정도이다.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내향, 인식기능인 직관형·감각형, 생활양식에 따른 판단형과 인식형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판단기능인 사고형과 감정형에 원예활동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P=0.008$).

전체에서는 감정형이 70.6%, 사고형이 29.4%로 적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매우 좋아한다’의 답변에서 감정형이 86.5%이고, 사고형이 24.5%이며, ‘좋아한다’에서는 감정형이 70.3%, 29.7%인데 반해 ‘매우 싫어한다’를 답한 학생의 44.4%만 감정형이고 55.6%는 사고형이었다. 감정형과 사고형에서의 원예활동 선호도는 감정형보다는 사고형이 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Kim et al.(1995)은 사고형은 사고를 통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감정형은 정서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한다고 하였으며, 원예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감정형보다 사고형이 낮았다.

Park(2005)의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한 결과로 사고형의 대상자에게는 원예활동을 객관적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대한 언급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원리 원칙적이며, 객관적이고 학업적 성취도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거부감이 적고 효과적인 원예치료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자기추측 MBTI의 선호 지표에 따라 식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조직은 Table 3과 같다.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내향($P=0.076$), 인식기능인 직관형·감각형($P=0.077$)에서 5%범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10%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판단기능인 사고형과 감정형에서는 사고형인 학생 33.3%가 식물전체의 형태를 선택하고, 감정형의 학생은 33.2%가 꽃을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식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따라 판단기능인 사고형과 감정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P=0.000$), 식물의 용도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감정형보다 사고형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에 원예치료에는 감정형보다는 사고형에게 식물의 꽃, 과일, 잎, 향기, 식물전체의 형태 뿐 만 아니라 식물이 어떠한 용도를 사용되는지 까지 설명을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MBTI 성격유형 지표에 따른 식물의 오감자극은 Table 4와 같다. 자기추측 MBTI의 지표에 따른 원예식물의 가장 큰 자극에 대한 결과 인식기능인 직관형·감각형($P=0.047$)과 판단기능인 사고형과 감정형($P=0.016$)에서 원예활동 오감자극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었다.

직관형 37.5%, 감각형 62.5%로 나타났으며, 시각·청각·촉각·후각에서 직관형보다 감각형이 전체 분포가 많이 나타난 반면 미각 자극에서는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선호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오감 자극 중 미각의 경우 감각형보다는 직관형에게 원예치료에는 더 효과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감정형과 사고형에서는 촉각

Table 2. Level preferred horticultural activities of MBTI personality type.

Item	Level preferred horticultural activities					Frequency (N)	Percentage (%)	χ^2
	Highly	A lot	Usual	Not much	Poorly			
Extraversion	28	104	176	31	8	347	45.4	1.824
Introversion	24	123	220	41	10	418	54.6	($P=0.768$)
Intuition	19	73	157	29	9	287	37.5	4.773
Sensing	33	153	240	43	9	478	62.5	($P=0.311$)
Feeling	45	159	283	46	8	541	70.6	13.922
Thinking	7	67	115	26	10	225	29.4	($P=0.008^{**}$)
Judging	16	76	115	28	8	243	31.7	4.789
Perceiving	36	151	282	44	10	523	68.3	($P=0.310$)

**Significant at $p < 0.01$ leveled by Chi square test.

에 대한 자극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MBTI 성격유형 지표에 따른 특성이 다른 식물선택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기추측 MBTI 성격유형 지표 선택 결과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내향, 선호하는 식물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식기능인 직관형·감각형에서는 오감에 의존해 사실적 사건을 묘사하는 감각형은 꽃이 있는 식물을 38.9%, 향기가 있는 식물을 38.5%순으로 선호하고, 영감과 육감에 의존하는 직관형은 향

Table 3. The first organization of interest in a plant of MBTI personality type.

Item	The first organization of interest in a plant						Frequency (N)	Percentage (%)	χ^2
	Flower	Fruit	Leaf	Fragrance	Form of whole plant	Use of plants			
Self guess MBTI	Extraversion	120	32	20	64	95	17	348	45.4
	Introversion	105	41	36	76	138	22	418	54.6
	Intuition	66	28	23	57	96	18	288	37.5
	Sensing	159	45	33	83	137	21	478	62.5
	Feeling	180	47	42	96	159	18	542	70.6
	Thinking	45	26	14	44	75	21	225	29.4
	Judging	79	23	20	39	71	11	243	31.7
	Perceiving	146	50	36	101	163	28	524	68.3

*** Significant at $p < 0.001$ leveled by Chi square test.

Table 4. Five senses of MBTI personality type.

Item	Five senses					Frequency (N)	Percentage (%)	χ^2
	Sight	Hearing	Touch	Smell	Taste			
Self guess MBTI	Extraversion	207	11	15	107	7	347	45.4
	Introversion	248	11	28	121	9	417	54.6
	Intuition	173	8	19	75	11	286	37.5
	Sensing	282	14	24	153	5	478	62.5
	Feeling	336	13	22	159	10	540	70.6
	Thinking	119	9	21	70	6	225	29.4
	Judging	132	6	18	81	6	243	31.7
	Perceiving	323	16	25	148	10	522	68.3

*Significant at $p < 0.05$ leveled by Chi square test.

Table 5. Choice of plant characteristics of MBTI personality type.

Item	Choice of plant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age (%)	χ^2
	Foliage plants	Fragrant with herbs	Flowering plants	Spiny cactus	Etc.			
Self guess MBTI	Extraversion	58	136	128	17	9	348	45.4
	Introversion	85	145	154	21	13	418	54.6
	Intuition	65	98	95	18	12	288	37.5
	Sensing	78	184	186	20	10	478	62.5
	Feeling	91	198	212	28	13	542	70.6
	Thinking	52	85	69	10	9	225	29.4
	Judging	52	83	91	17	0	243	31.7
	Perceiving	91	199	191	21	22	524	68.3

*** Significant at $p < 0.01, 0.05$ leveled by Chi square test.

기가 있는 허브를 34%, 꽃이 있는 식물을 33%순으로 선호하였다.

생활양식에 따른 판단형·인식형에서 판단형에서 꽃이 있는 식물을 37.4%, 향기가 있는 식물을 34.2%순으로 선호하고, 인식형은 향기가 있는 허브를 38%, 꽃이 있는 식물을 36.5%순으로 선호하여 선호하는 식물군에 따라 직관형·감각형($P=0.030$), 판단형·인식형($P=0.004$)의 선택이 다를 수 있었다.

판단기능인 사고형과 감정형에서는 5%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86$).

MBTI 성격유형 지표에 따른 흥미로운 원예활동은 Table 6과 같다. 자기추측 MBTI 성격유형 지표와 흥미를 가지는 원예활동에 대한 결과 인식기능인 직관형·감각형에서는 오감에 의존해 사실적 사건을 묘사하는 감각형은 만들고 꾸미기를 39.5%가 가장 선호하고, 영감과 육감에 의존하는 직관형은 식물 느끼기를 37.5%가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인식기능에 따라 기르기, 만들고 꾸미기, 느끼기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었다($P=0.038$).

Kim et al.(2015)은 성격유형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 선호도 차이를 본 결과, 감각형과 직관형은 물 흐르는 소리, 허브차 마시기, 숲속 잠자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으며, Han et al.(2009)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원예활동 중 꾸미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르기, 느끼기 순이라고 하였다. 감각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내에서 꾸미기는 효과적이지만 직관형에게는 전체의 10%만 차지하는 느끼기 활동을 가장 선호함으로 대상자가 직관형이 많을 시에는 꾸미기보다는 느끼기 활동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판단기능인 사고형과 감정형에서는 사고형은 식물 느끼기를 36.9%가 가장 선호하고, 감정형은 38.7%가 만들고 꾸미기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78$).

IV. 적요

대학생 대상의 MBTI 성격유형, 자기추측 MBTI 성격유형, 원예선호도 조사·분석, 성격유형과 원예선호도와와의 관련성 구명, 개인의 성격에 기초한 식물 및 원예활동을 파악하여 원예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 MBTI 선호지표의 대표적인 표현들에서 자기에게 더 가깝다고 추측한 결과로 얻어진 자기추측 MBTI 성격유형과 원예선호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직관형과 감각형에 따라 직관형은 향이 있는 허브를 가장 선호한 반면 감각형은 꽃이 있는 식물을 선호하였다. 원예활동 시 가장 자극이 되는 오감, 식물의 특성, 흥미로운 원예활동에서도 직관형과 감각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고형과 감정형에서는 사고형은 식물에서 가장 먼저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에 관심을 보인 반면, 감정형은 식물에서 가장 먼저 꽃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과 감정형에 따라 원예활동 선호정도, 식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조직, 원예활동 시 가장 자극이 되는 오감, 원예활동 효과에 있어 유의차를 보여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판단형과 인식형에서는 식물의 특성 선택에서 판단형은 꽃이 있는 식물을 선호한 반면, 인식형은 향이 있는 허브를 선호하였다.

자기 추측 MBTI 성격유형 결과 식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조직과 식물의 특성 선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References

- Choi, M.H., I.S. Lee, S.M. Lee, and J.K. Suh. 2009. A hypothetical 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client responses on the plant and the horticultural therapist in horticultural therapy. J. Korean Soc. People Plants Environ. 12:7-17.

Table 6. Interesting horticultural activity of MBTI personality type.

Item	Interesting horticultural activity				Frequency (N)	Percentage (%)	χ^2
	Grow	Decorate	Feel	Et cetera			
Extraversion	89	128	118	13	348	45.4	0.388
Introversion	115	148	140	15	418	54.6	($P=0.943$)
Intuition	79	87	108	14	288	37.5	8.401
Sensing	126	189	149	14	478	62.5	($P=0.038^*$)
Feeling	140	210	175	17	542	70.6	6.809
Thinking	65	66	83	11	225	29.4	($P=0.078$)
Judging	68	95	73	7	243	31.7	3.077
Perceiving	136	182	185	21	524	68.3	($P=0.380$)

*Significant at $p<0.05$ leveled by Chi square test.

- Chung, E.E. 1998.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BTI and pictorial expression. J. Kor. Acad. Psychological Type 5:81-111.
- Chung, E.E. 1999. Preferred materials and differences in pictorial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J. Kor. Acad. Psychological Type 6:149-175.
- Han, C.H. 2011. Relevance of the preferring color & tone and personality type from MBTI by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 Soc. Design Culture 17:642-653.
- Han, K.H., S.M. Lee, and J.K. Suh. 2009. Analysis about therapeutic objectives and horticultural activities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at developmental stage of group horticultural therapy. J. Korean Soc. People Plants Environ. 12:21-29.
- Han, K.H., S.M. Lee, and J.K. Suh. 2009. An analysis of group horticultural therapy elements on horticultural therapy research paper. J. Korean Soc. People Plants Environ. 12:21-29.
- Im, E.A. 2010.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es of horticultural therapy and examination of its efficacy. PhD Diss., Konkuk Univ., Seoul, Korea.
- Kim, J.T., H.S. Sim, and S.B. Je. 199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BTI.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Y.H., D.J. Kim, P.S., Yeoun, B.J., Choi, and E.J., Kim. 2015. The preference analysis of forest therapy program with regard to personality typ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and Welfare 4:394.
- Lee, D.J. and E.H. Ko.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ior style preference. J. Archit. Inst. Korea Plan Des. 27:99-106.
- Lee, J.H. 2002. A study on the planning of special branch hospital for alternative medication: focused on the connected characteristics of interior and exterior space. MS thesis, Kyunghee Univ., Seoul, Korea.
- Park, S.H. 2005. The relevance of MBTI personality types to mathematics prefer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MS thesis, Kookmin Univ., Seoul, Korea.
- Son, K.C., M.K. Cho, J.E. Song, S.Y. Kim, and S.S. Lee. 2006. Practice of professional horticultural therapy. Kubook, Seoul, Korea.
- Suh, J.H., O.K. Kim, and H.S. Yeo. 2008. A study on the analysis of visual preference and image for the display type of outdoor floral sculpture. J. Korean Soc. People Plants Environ. 11:11-26.